SPORTS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막내의 반란’ AI페퍼스, 6위 수성 나선다

오늘 오후 7시 광주페퍼스타디움서 흥국생명전
7위와 승점 1점 차…최초 전 구단 상대 승리 도전

여자프로배구 막내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안방에서 리그 6위 수성에 나선다.

AI페퍼스는 11일 오후 7시 광주페퍼스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흥국생명 배구단과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앞서 지난 7일 AI페퍼스는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3(25-20 17-25 20-25 25-21 10-15)로 무너지며 4연패의 늪에 빠졌다. 그 결과 10승 23패 승점 33을 기록, 리그 6위 자리는 유지했다. 하지만 리그 7위 GS칼텍스(10승 23패 승점 32)와의 격차는 1점 차로 줄었다.

올 시즌 AI페퍼스는 구단 역대 최다승리와 최다승점 기록을 경신하는 데 성공했다. 2021-2022시즌(3승 28패·승점 11), 2022-2023시즌 (5승 31패·승점 14), 2023-2024시즌 (5승 31패·승점 17)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다.

문제는 순위다. 매번 리그 최하위를 면치 못했던 AI페퍼스는 현재 리그 6위를 달리고 있지만, 자리가 위태롭다. V리그 종료까지 남은 경기는 단 3경기.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AI페퍼스는 구단 역대 최고 순위 경신 또한 간절하다.

이런 상황에서 맞붙을 상대는 일찌감치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한 리그 1위 흥국생명(26승 7패 승점 77).

AI페퍼스는 올해 흥국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에게 모두 승리를 거뒀다. 유일하게 극복하지 못한 팀이 흥국생명이다. 더욱이 5차례의 맞대결 동안 셧아웃 패배는 3번에 달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흥국생명은 최근 두 경기에서 주전 멤버들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김연경, 이고은, 투트쿠 등은 사실상 휴식기에 돌입했다. 그나마 정윤주와 피치만이 선발에 나설 정도다. 오는 31일 예정된 챔피언 결정전을 위해 체력 안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임혜림, 최은지, 김다은 등 백업 멤버들 역시 주전급 역량을 가지고 있다. 리그 1위를 일찍이 확정 지었을 정도로 단단한 팀인 만큼,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승리 가능성이 있다.

AI페퍼스가 리그 최강팀 흥국생명을 꺾고 순위 굳히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흥국생명전은 광주에서 김연경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경기다. 한국 여자배구 간판 김연경은 지난달 13일 GS칼텍스전 종료 이후 “올 시즌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흥국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단이 김연경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자체 은퇴식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AI페퍼스는 이날 경기를 마친 후 김연경 이름을 새긴 AI페퍼스 유니폼에 선수들의 사인을 담아 액자로 전달할 예정이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 배구단과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경기에서 AI페퍼스 선수단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

역시 안세영…천위페이 꺾고 시즌 ‘3연속 우승’

오를레앙마스터스 결승서 2-0 승…3개 대회 제패
13경기 무실 게임 행진…11일 영국 전영오픈 출전

셔틀콕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천적’을 꺾고 오를레앙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지난 9일(한국시간) 프랑스 오를레앙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천위페이(중국·11위)를 2-0(21-14 21-15)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을 연달아 제패한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이로써 올 시즌 출전한 3개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제 안세영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전영오픈까지 4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안세영은 오를레앙 마스터스 32강전에서 랭킹 55위 운나티 후다(인도), 16강전에서 39위 폰피차 쯔이끼웡(태국), 8강전에서 7위 미야자키 도모카(일본)를 모두 2-0으로 제압했다.

4강전에서 중국의 가오팡제(17위)에게 첫 게임을 내주며 최근 13경기까지 이어졌던 ‘무실 게임 행진’을 끝낸 안세영은 2·3게임을 따내는 역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상대 전적에서 안세영에 앞서 ‘천적’으로 알려진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천위페이.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은 21-14로 1게임을 따내며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했다.

기세가 오른 안세영은 2게임도 시작부터 8-2로 달아나는 등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21-15로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안세영은 천위페이를 상대로 통산 10승(13패)째를 기록했다.

천위페이와 결승을 끝으로 오를레앙 마스터스(슈퍼 300)를 마친 안세영은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대회 전영오픈에 곧장 출격한다.

전영오픈은 1899년에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배드민턴 대회다.

2년 전 안세영은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27년 만에 여자 단식 정상에 올라 세계 최정상급 선수임을 증명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전영오픈 2연패를 노렸으나 준결승에서 야마구치 아카네(일본)에게 1-2로 패했다.

32강부터 가오팡제를 만나는 전영오픈에서는 대진상 8강에서 천위페이, 4강에서 야마구치와 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여자 단식 결승에 앞서 열린 여자 복식 결승에서는 김혜정(삼성생명)-공희용(전북은행) 조가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 조를 2-0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1게임으로 21-18로 어렵게 따낸 김혜정과 공희용은 2게임에서도 듀스 접전 끝에 23-21로 웃으면서 최종 승자가 됐다. 송하종 기자 hajong2@

광주FC, ACLE 트로피 투어

12일까지…전일빌딩 245 등 5곳 방문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에 진출한 프로축구 광주FC가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아시아 전역에 광주의 미를 알린다.

광주FC는 오는 12일에 펼쳐지는 ACLE 16강 2차전 비셀 고베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11일·12일 양일간 ACLE 트로피 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트로피 투어는 ACLE에 진출한 각 구단의 연고지를 순회하며 각 랜드마크를 아시아에 소개하는 행사다. 아시아축구연맹이 기존의 ACL을 대체하는 최상위 대회 ACLE를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트로피 투어는 지난 대회 우승팀인 아랍에미리트의 알 아인을 시작으로 아시아 각 도시를 순회했다. 광주는 11번째이자 대한민국 클럽 중 유일하게 ACLE 트로피를 맞이하게 됐다.

투어장소는 올해 ‘광주 방문의 해’를 맞은 만큼 광주 관광공사의 도움을 받아 선정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적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전일빌딩245’, 근대역사문화마을인 ‘양림역사문화마을’, 광주의 명소이자 필수 여행코스로 자리 잡은 ‘광주송정역’과 ‘1913 송정역 시장’ 등 총 5곳의 명소에서 진행된다.

경기 당일인 12일에는 팬들을 위한 포토존이 운영된다. 행사는 오후 5시부터 60분간 광주월드컵경기장 외곽(S석 전광판 뒤쪽)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최경주, 두 번째 ‘톱10’ 콜로가드 클래식 공동 8위

최경주(사진)가 미국 시니어 투어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톱10에 진입했다.

최경주는 10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의 라 팔로마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콜로가드 클래식(총상금 22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1타를 쳤다.

3라운드 합계 8언더파 205타를 적어낸 최경주는 공동 8위에 올랐다.

지난 2월 트로피 하산 2세 때 4위에 올랐던 최경주는 이번 시즌 세 번째 출전 경기에서 두 번 톱10에 입상했다.

최경주는 올해 PGA 투어 대회에 3차례나 출전하느라 시니어 투어 대회 출전 횟수가 적다.

‘시니어 제왕’으로 자리 잡은 스티븐 알커(뉴질랜드)가 제이슨 카슨(미국)을 연장전에서 물리치고 이번 시즌 처음이자 통산 9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둘은 이날 나란히 5언더파 66타를 쳐 합계 12언더파 201타로 우열을 가리지 못해 연장전을 벌였고, 알커가 18번 홀(파4)에서 치른 첫 번째 연장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카스를 제쳤다.

알커는 PGA 투어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었지만 시니어 무대인 PGA 투어 챔피언스에 진출해서는 2022년과 작년 두차례 상금왕에 오르는 등 최강자로 거듭났다.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인 양용은과 2언더파를 친 위창수는 공동 25위(3언더파 210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조상연 3단, 국토정중앙배 천원전 우승

신예 프로기사 조상연(16)이 입단 1년 반 만에 두 번째 타이틀을 획득했다.

조상연은 9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2025 양구군 국토정중앙배 천원전(天元戰) 결승에서 임경찬 2단에게 194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우승컵을 차지했다.

2023년 9월 입단한 조상연은 지난해 하찬석국수배 영재최강전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우승컵이다.

이번 대회 예선에서 윤라은 초단과 이나경 2단을 꺾은 조상연은 본선에서는 한주영 초단, 주현우 2단, 최민서 4단을 차례로 제치고 결승에 올랐다.

조상연은 우승 후 “최근 다른 대회에서 많이 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우승을 계기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상연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4단으로 승단했다. 천원전에는 2006년 이후 출생자인 신예기사 45명이 참가했다.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김은지 9단은 예선에서 김기언 2단에게 일격을 당해 초반 탈락했다.

스미레 4단은 여자기사로는 유일하게 8강에 올랐지만, 최민서 4단에게 패했다.

천원전 우승 상금은 1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400만원이다. 연합뉴스

손흥민 페널티킥 동점골로 리그 7호골

토트넘, 본머스와 2-2 무승부

‘캡틴’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리그 7호 골을 터뜨려 팀을 패배 위기에서 건져냈다.

토트넘은 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8라운드 홈 경기에서 본머스와 2-2로 비겼다.

승점 1을 얻어낸 토트넘은 승점 34(10승 4무 14패)로 EPL 13위를 유지했다.

본머스(승점 44·12승 8무 8패)는 8위에 올랐다.

이미 리그 성적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최근 유럽 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 집중하는 토트넘은 손흥민 카드를 아껴둔 채 본머스전에 나섰다.

선발 명단에서 제외돼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브레넌 존슨 대신 그라운드에 투입됐다.

틈틈이 공격 기회를 엿보던 손흥민은 1-2로 밀리던 후반 37분 폭발적인 스피드를 이용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상대 수비 라인을 허물며 왼쪽 페널티 지역으로 침투한 손흥민이 먼저 공을 터치했고, 뒤늦게 골키퍼가 손으로 손흥민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다.

손흥민은 골키퍼를 속이고 가운데로 차 넣어 깔끔하게 페널티킥에 성공했고, 2-2로 균형을 맞췄다.

손흥민의 올 시즌 리그 7호 골(9어시스트)이자, 올 시즌 공식전 11호 골(10어시스트)이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 본머스의 강한 압박에 고전했다.

전반 4분 로메로가 수비 진영에서 패스를 돌리다가 상대 압박에 공을 빼앗겨 위기에 처했으나 저스틴 클라위버르트의 오른발 슈팅을 비카리오가 다리로 쳐내며 선방했다.

하지만 전반 42분 밀로스 케르케즈가 공을 몰고 왼쪽 측면을 따라 질주한 뒤 크로스를 올렸고, 마커스 태버니어가 오른쪽 골 지역에서 슬라이딩하며 오른발로 밀어 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20분에는 본머스 이바니우송에게 센스 있는 칩슛으로 추가 골을 허용하고 0-2로 끌려갔다.

토트넘은 연속 중거리 슛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후반 21분 루카스 베리발의 중거리 슛은 골대를 맞고 나왔으나 1분 뒤 왼쪽 측면 파페 사르의 벼락같은 오른발 중거리포는 반대쪽 골대에 맞은 뒤 골망을 흔들어 한 점을 만회했다.

이어 손흥민이 후반 39분 페널티킥으로 토트넘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다. 연합뉴스

페널티킥 얻어내는 손흥민. 연합뉴스